

지 상 법 석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5)

宗密禪師 座右銘 (종밀선사 좌우명)

寅起可辦事 省語終寡尤... 인기가변사 성어종과우...

인시(새벽 3~5시)에 일어나야 (하루 하루)일을 가릴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 마음...

몸은 계와 정에 힘써야 안돈하고 일은 간결하게, 벗과의 사귀는 성글게 하라.

남의 허물을 제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허물은 마땅히 스스로 닦아 없애라.

기껏해야 백살이 한평인데 세상 일을 어느 때나 될 것인가

落髮難得數 應須伴上流

남 허물 판단 말고 자기 허물 닦아 없애라 생각·알음알이가 많으면 道의길 막힌다

낙발타승수 우수모상류 胡爲逐世變 志漸向飄浮... 호위축세변 지려상호부...

머리 깎고 종이 된 팔자인대는 모름지기 옛 사람(스승·선지식)을 본보기 삼아 마땅하게 할

어찌 세상의 무상한 변화를 좇아서 뜻과 생각이 오히려 들뜨고 시끄럽게 하는가.

사은(부모·나라·종생·삼보의 은혜)이 산처럼 무거우니 치수(무계의 가장 적은 단위:적은 공력)로는 짚을 수 없거늘

어리석고 어리석게도 큰 집(질)에 기거 하면서 조급한 마음뿐이라 닦음이 없으니 어찌 도를 구할 것인가.

死生在呼吸 起滅若浮華 事無常無常 離作阿鼻由 無命方脫下 離作阿鼻由 無命方脫下 離作阿鼻由

생사가 한 호흡간에 달려있고 나고

죽는게 물거품 같도다. 너로 하여금 가사를 걸치고 도리어 아비지옥의 인연·까닭을 짓게하지 말라.

亡名法師息心銘 (망명법사식심명) ①

法界 有如意實人焉 法계 유如意實인인 法계 유여의보인인 久藏其身 銘其德曰 古之攝心人也 久藏其身 銘其德曰 古之攝心人也

법계에 여의보인이 있으니 오래 그 불살함을 닦아 걸고 가슴에 새겨 가문 되 옛날에는 마음을 조절한 이를 이름이라하니 경계할지이다. 경계할지이다.

많이 생각치 말고 많이 알려지지 말라. 알음알이가 많으면 일이 많으니 뜻을 쉬는 것만 같지 못하다.

생각이 많으면 (공부에) 잃는게 많다. 하나를 지킴(고요히 정에 들어 근본을

관함)만 같지 못하니라.

應多志散 知多心亂 心亂生惱 志散妨道 應多志散 知多心亂 心亂生惱 志散妨道 應多志散 知多心亂 心亂生惱 志散妨道

생각이 많으면 뜻이 산란해지고 알음알이 늘면 마음만 어지러운지라 어지러우면 번뇌가 일어나고 뜻이 흩어지면 도의 길이 막힌다.

(이상에서 경계한 것)무엇이 나쁘랴 하지말라, 그 고통은 더욱 길어지리라.

무엇이 두려우랴 하지말라, 그 화가 숲 속의 끓는 물처럼 어지러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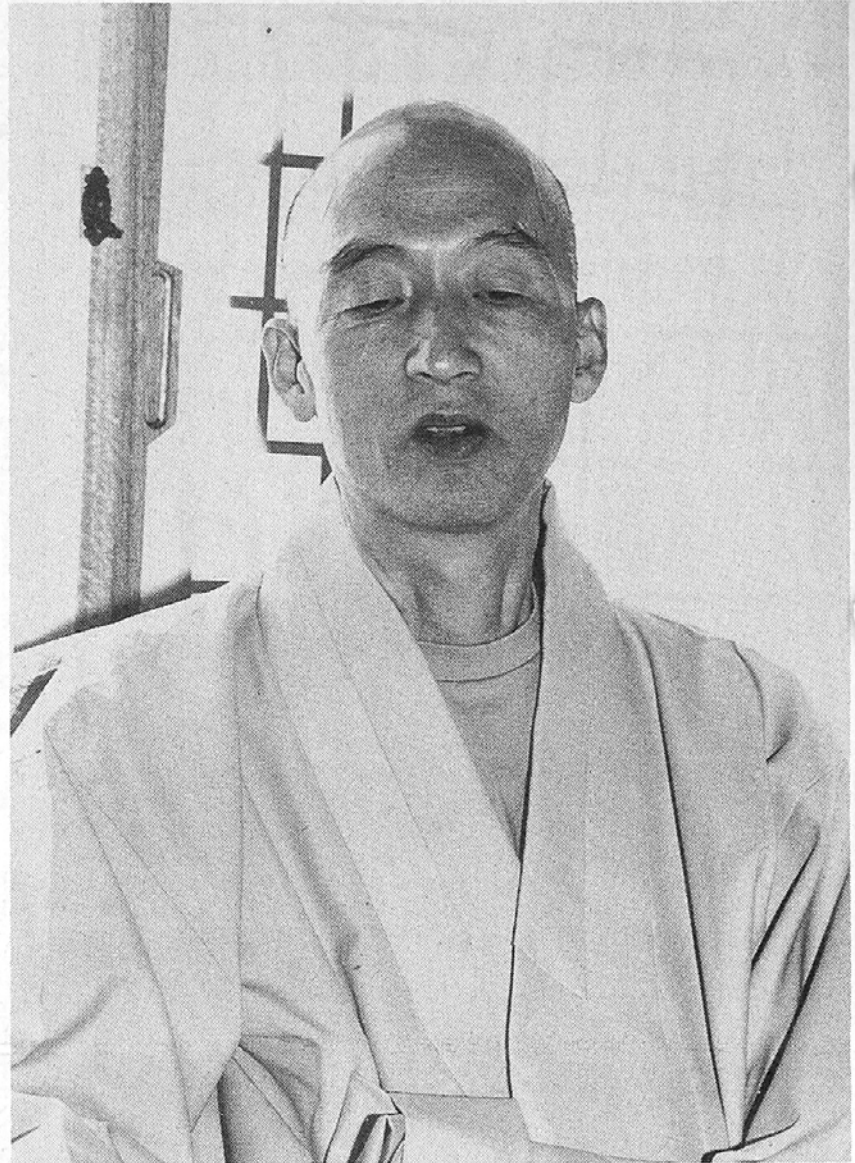
물방울(사랑·번뇌의 물방울)도 그치지 아니하면 점차 사해에 넘치게 되고 티끌도 탈지 아니하면 점차 큰산을 이루리라.

(공부의) 끝 맺은 근본에 있다. 비록(번뇌·망상)적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龍眼

“남 칭찬하는 말 한마디

광덕스님 불광법회법주



약력 1927년 경기 화성 생... 54년 법어사 강원 대학교 수료... 66년 불은사주지... 74년 월간 불광 창간... 불광법회통해 20여년간 대중교화... 저서로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보현행원 품 강의> 등 다수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현하는 방법은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행원도 그냥 하나의 좋은 일을 하는 것,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위해 주는 것 정도로 알고 말아서 참으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현재 생활에서 창조적인 힘으로 발휘하게 한다는 것을 간파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불사이며 법성진어입니다.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원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 마음은 이와같이 아름답고 우리들의 참 생명은 이와 같이 큰 위신력이 있고 부처님의 큰 공덕을 받고 태어난 생명인데 어찌서 우리 주변환경에는 이렇게도 거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생각 그 중에서도 잠재의식 속에 그릇된 생각들이 꼭 끼어 있어서 본성은 원래 밝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두운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망명

“가정에 법등 밝히고 부처님 은혜 넘치게하여 밖에서 고난 당해도 서로 감싸주는 안식처로 만들어야”

의 그림자를 말끔히 소탕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환경에 밝음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는 세가지 근본행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올바른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공덕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절대의 가치와 권위와 능력과 복덕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불법을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불법에 귀의하지 않고는 이 법문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물질적인 한계에 매여 살게 되어 위대한 자기 진실생명에 대한 공정을 못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 생명의 참모습은 반야에서 보는 바의 진리 공덕 실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체 중생이 덕성을 원만히 갖추어 나와 더불어 다름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눈, 부처님의 지혜로 본 것이고 우리들의 수행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의 진실생명의 모습 그것입니다. 이것이 제불보살과 더불어 함께 있는 생명의 본래의 참모습입니다.

두번째는 항상 반야바라미를 염하며 자신은 부처님의 진리생명으로서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고, 구족하다는 것을 잊지 않

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은 본래부터 푸른 것인데 어두운 구름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의 하늘, 나의 마음의 하늘, 나의 생명의 하늘은 이와같이 푸른 것입니다. 청정한 것이다’ 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심으로 반야바라미를 염하는 가운데 상이 없는 진실본분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세번째는 행원의 실천입니다. 반야가 보는 바 나의 생명의 진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참모습을 공경하고 그 공경한 상태를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원은 무한절대공덕이며 일체에 지재하고

영원무한인 부처님의 공덕세계를 나의 생명의 참모습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행원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것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명 속 깊이 있는 열하지 않고 항상 뛰고 있는 진리생명 그대로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야바라미를 항상 염합니다. 바라밀염송을 일심으로 행하는데서 바른 믿음이 확립되고 청정자성광이 깊어지며 보현만행을 전개할 힘과 지혜와 용기가 솟아 오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참회입니다. 내 환경에

어두운 불행이 나타나거나 내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나 증오나 원한 같은 생각이 있거나, 억압감정이나 파괴적인 울분 같은 감정이 있을 때는 우선 참회를 하여 이런 것들을 소탕해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풀이켜 보고 뉘우치고 참회하며 참 자기 생명의 밝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밝을 가운데 노출시키는 것은 어두운 데에 있다가 밝은 부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참회할때 마음 속의 어둠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참회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밝은 진리 앞에 나타내 보이고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이렇게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국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 과정 연수. 대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기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등의 침구치료, 비만치료법, 기공 등. 연수후: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침구·기공). 인원: 15명 이내. 출발일: 1995년 11월 27일(월요일). 남경중의약 대학: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자매대학-삼화불교대학. TEL: (02) 511-2026, 2027, 2028, 1080. FAX: 511-1080.

불교 정보 95년도 신판 발간. (불기 2539년-1995년-가을호). 불교계의 자료집으로 제작·보급되는 불교정보는 불교계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알차게 갖추어 노력하겠습니다. 불자들의 많은 후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제된 내용: 1) 불교 종단의 임원 및 주소, 전화번호, 역사 등. 2) 사찰의 건립 및 종창 역사, 주소, 전화번호, 현존 문화재, 소속종단, 조실 및 현 주지 등. 3) 전통사찰에 전해 오는 설화와 사찰 기록. 4) 사찰과 포교당의 법회, 위치 및 교통편 안내. 5) 불교계 언론 및 잡지사, 출판사, 불교용품 전문점 등. 6) 불교계 각종 학교, 신도회 및 일반 신학회 안내. 7) 사찰과 신행회는 각 시도별로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개정판에 기재하겠습니다. \* 불교정보 1권당 1만원입니다. \* 책 대금을 다음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접수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동협중앙회 053-12-023151, 서울신학은행 15501-2537606, 외환은행 150-13-11760-5, 세신(부우체국) 011965-0066025, 국민은행 832-24-0006-924, 조흥은행 390-04-164932. 예금주: 이성호. 도서출판 다모다. ☎ 02-921-6669, 6670.